교구 선거인단 축소 '쟁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 공청회

개정측 **사전조정 · 거부권 원로회의 부여**

고수측 **부분보완 선거공영제 도입토록**

"종도 참여확대를 통한 대표성 민주성 보장이냐" 아니면 "선거인단을 줄여 선거 과열을 막느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새해 벽두 종단의 화두로 떠올랐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 ·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종하)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쟁점사안은 교구본사 선거인단 축소 여부.

정병조(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는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전형적인 대의제 선거인데 24교구에서 선출한 총 240명의 선거인단과 중앙 종회의원 81명이 선거인단이 되어 전체 321명에 이르고 있어 직접 선거에 준하는 방대한 인원이 참여한다"며 "240명에 이르는 교구본사 선거인단을 없애고 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포교원장, 교육원장을 선거인단으로 하고, 사전 조정이나 거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원로회의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익섭(동국대 행정학과)교수는 "94년 종단개혁의 최대 성과물 중 하나가 종도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함께 총무원장에 대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개선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은 과거 총무원장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묘한 선거제도이며, 표면상 교구별로 단합이 되었다 해도 소신 투표가 용인되는 제도인 만큼 총무원장 간선제는 운영하기에 따라서 불교공동체의 이상 구현에 유리한 점이 많다"고 반론을 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 제 · 개정특위는 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총무원장 선거제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321명에 이르는 선거인단 수를 108명으로 줄이자는 것.

줄이자는 주장은 선거인단이 321명에 이르다 보니 총무원장 선출 때마다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구별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묵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회의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각 교구별로 10명의 선거인단을 뽑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종회의원 81명, 본사 주지 24명, 포교원장 교육원장 호계원장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행선거제도를 고수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1994년 종단개혁의 대표적인 성과는 선거인단 수를 늘려 종도들의 뜻이 반영되게 한 것이었던 만큼 2번의 선거를 거치며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94년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94년 이전처럼 종회의원등 소수에 의해 총무원장을 선출할 경우 종도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으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참정권을 막는 방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종도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런 만큼 현재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놓아두고 공정선거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대안이 뒤따랐다.

결국 현행제도 고수와 개정해야 한다는 양측의 주장은 어떻게 하면 교단의 이상인 '합의에 의한 종단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는데 교감을 이뤘지만 더이상 뾰족한 정답을 찾지는 못했다.

다만 교구본사 선거인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정하여 종단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한 표를 얻기 위하여 손상좌 뻘 되는 선거권자에게 허리를 굽혀 승가위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하자는 것과 비구니스님들의 선거권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이번 공청회는 종단선거가 정당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도변화 이전에 종도들이 스스로 승가화합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평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외국인 스님 자질향상 기대

기초선원 개설추진 배경

'교육 이수해야 구족계' 제도적장치 마련

외국인 스님들 환영…적극 참여가 과제

조계종 교육원이 '외국인 기초선원'을 개설해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삼겠다는 것은 외국인 스님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자질향상을 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지금까지 화계사, 연등국제불교회관 등 몇몇 개별 사찰에 의존했던 것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내실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 스님들도 내국인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종단이 정한 일정교육을 이수해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외국인 스님들의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스님들을 배려하는 측면이 더 짙다. 현행 조계종법상 강원 등 종단기본교육기관을 나오지 않고는 구족계 수계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외국인 스님들로서는, '외국인 기초선원'이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만큼 구족계 수지 자격을 쉽게 얻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어 구사 능력 부족 등 외국인 스님이 강원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36명의 외국인 스님 중 구족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외국인 스님들이 구족계 수지 자격을 얻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원이 의도하고 있는 또 한 가지는 한국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 스님들을 조계종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 스님이 상당수에 달하고, 이들이 조계종에 들어올 경우 '해외포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 지원이나 초발심자경문, 서장 등의 전통교재 번역사업 등 외국인 스님들 위해 마련한 네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이같은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선원이 개설된다 하더라도 한국불교와 한국어 대한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외국인 스님들은 교육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로 잘 알려진 현각스님(영주 현정사 주지)은 "외국인 스님들끼리 모여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외국인 스님의 자질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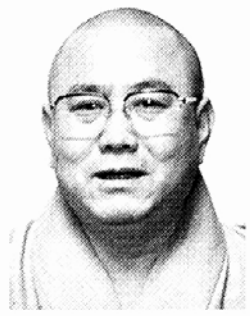
하지만 이같은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과제로 남는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스님들은 동국대에서 실시하는 1년 과정의 한국어 교육 강좌나 안거 후 시행하는 산철교육의 경우 많은 스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 등의 배려와 함께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원도 외국인 기초선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정착이 참여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전통교재 번역사업에 외국인 스님들을 참여시키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냉전시기 평화통일 씨앗"

창립 10주년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



밀가루 등 10년간 13억 대북 지원

북한불교 용어정리 · 알리기 앞장

'60개 북한사찰과 종단 결연' 계획

"평불협은 10년전, 한반도 냉전의 시기에 평화통일의 씨앗을 뿌린 '선구자적' 단체입니다.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대북지원, 남북한 불교교류를 추진해왔다는 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10년이라는 경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 10년에는 불자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남북 불교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겠습니다."

12일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은해사 회주)은 불교운동의 이념정립과 대북지원을 통한 경험을 국민들과 공유, 통일운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통일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의 선구적인 통일운동단체로서 평불협은 92년 2월 12일 창립 이래 여러차례의 정치 ·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사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97년 황해도 사리원에 금강국수공장을 설립한 평불협은 98년 4월부터 매달 60톤의 밀가루를 지원, 하루 7천여 명분의 식량을 북한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조선불교도연맹을 통해 설탕, 식용류 등 생필품도 지원해, 10년 동안의 북한지원 규모는 총 13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남북한 해빙무드를 타고 사상최대인 3억4천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법타 스님은 <북한불교 답사기>, <북한불교연구> 등 북한불교를 알리는 책을 내었으며, 북한에서 잘못 쓰이는 불교용어를 바로잡는 한편 남북한 불교교류를 위해 '북한불교사진전'과 '북한미술품전', '통일서예전' 등을 꾸준히 개최해 왔다. 이외에도 통일운동가의 명예 회복 운동과 윤이상 음악제의 개최를 지원해 남북한의 문화교류에도 기여했다.

"불교계 처음으로 통일운동을 벌이다 보니, 교계나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94년 김영삼 정권에 의해 저를 비롯 스님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타 스님은 민족문제, 남북관계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아쉬워하며 다양한 민간단체가 성장해 통일과업이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되기를 소망했다.

통일운동은 1회용 생색내기가 아니라 무주상 보시의 하나라고 강조한 법타 스님은 타종교에 비해 사부대중의 참여와 관심부족, 경제적 여건 미비를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래서 스님은 종단과 통일단체와 연대해 통일교육기금과 교육자료를 마련하는 등 통일교육 불사와 북한불교 중흥지원 사업을 평불협의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남북한 문화의 공통분모인 불교가 통일의 공통분모가 되야 한다"는 법타 스님은 "남북한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통일음악제를 3월 개최, 신계사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불교의 진흥을 위한 조불련 활동 지원과 60개 북한사찰과 종단의 결연사업도 병행하겠다"고 올 사업을 밝혔다.

평불협은 22일 오후 6시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1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02)735-5558. 강유신 기자

해외전시기획(KOBA)
KOBA (Korean Organization of Buddhist Artists)는 현대불교신문사 산하 예술기획사로 해외전시, 번역, 출판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고결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KOBA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중에 있으며 현재 6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포교에 관심 있고 역량 있는 예술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조원희 실장 (전화 02-737-8881, E-mail. whcho@buddhapia.com)
Korean Organization of Buddhist Artists

해인사승가대학입방공고

한국불교의 요람이며 전통승가교육의 산실인 해인사 승가대학(강원)에서는 신입생 및 편입생 방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치문반 00명
- 사집반 0명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1부
2. 승적증명서(총무원 발급) 2부
3. 행자교육 수료증 사본(총무원 발급) 2부
4. 수계증명서 사본(총무원 발급) 2부
5. 주민등록초본 2부
6. 호적등본 2부
7. 건강진단서 2부
8. 은사스님 추천서 1부

준비물

1. 사진(오조가사 복장 / 3×4cm) 8매
2. 입학금
3. 대가사(사미는 만의), 오조가사, 장삼, 발우, 필기도구, 도장(법명)

전형방법

- 1차 입방 ◆서류제출일 불기 2546년 2월 9일(양력 2002년 3월 22일) 금요일
  ◆서류심사 및 면접일 불기 2546년 2월 15일(양력 2002년 3월 28일) 목요일
  ◆입방일 불기 2546년 2월 16일(양력 2002년 3월 29일) 금요일
- 2차 입방 ◆제 22기 행자교육원 수료 후 1주일 內 예정

문의처

- 전화 055)931-1016, 1017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불기 2546년 월 일

해인사승가대학 주지 수봉 세민 · 학장 정혜 지오